

아름다운 강변은 어느 곳에

유창렬 (현대 엔지니어링(주) 수자원 개발부 대리)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물에는 반짝이는 고운 모래 빛... 어느 동요에 나오는 가사라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아쉬움을 남기는 고운 노랫글이다.

어렸을 적 한적한 강가의 용기종기 모인 마을 한켠에서 자란 분들이라면 아련한 추억에 잠겨, 반쯤은 감은 눈, 그 속에서 고향을 그려보게끔 할 수도 있는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한다. 현실이 그리하지 않기에 더욱 절절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 동요가락 한 소절이 그리도 구구절절한 것은 강변아파트에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성공의 잣대로 삼고 생활하는 도시민의 아픔이기도 하리라. 반짝이는 모래 대신에 딱딱한 콘크리트 포장과 블록, 강가의 현란한 네온불빛 이런 것들이 추억 속의 강변을 더욱 그렇게 한다.

옛날을 그리는 분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자란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특히 강변마을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분들은 놀만한 곳도 없고 장난감도 딱히 없던 그 시절 여름 한날에 또래의 친구들과 아침이 밝기 무섭게 어깨동무를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강으로 먹감으로 다니던 기억이 새로울 것이다. 그러나 강가 어느 곳

에서도 물로 뛰어들어 물장구도 치고 떡도 감고 고기도 잡을 수 있던 그 강이 아직도 그대로인 곳이 몇이나 될까? 우리네 강은 홍수때면 넘치는 물을 막기위해 마치 고속도로 내듯 쪽쪽 독을 쌓고, 어느 곳 하나 다름이 없이 때를 입히거나 블록으로 호안을 해 놓았다. 독을 만들 필요가 없는 곳은 그나마 자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곳은 또 영락없는 음식점과 여관 천지이다.

저 아름다운 남한강변이 그렇고, 산속 계곡의 주변이 그러하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천의 관리는 치수와 이수를 위한 정책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저 멀리 중국의 대운하들이 그러하였고 우리네 하천의 개발의 기본방향도 이루어졌다. 그로 인한 많은 성과도 거두었으며 또 향후로도 이러한 정책의 큰 기조는 변화가 없으리라. 그러나 작은 추억이라도 갖고 간 기성세대는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강변의 아름다움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도 힘들게 되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가 아니라 강변에 지어올린 높은 강변 아파트에서 살고 해야 할 판이다. 아름다운 강변은 강변공원만인 줄 알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후대에 몸을 이용하는 방법과 시설을 주었을 망정 조상 대대로 자연이 만들어준 구절양장파도 같은 강의 모습은, 그 강변에 햇살을 받고 반짝이는 고운 모래는 아아가 버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제적 발전에 걸맞게 환경에 신경을 돌리는 시선이 이제는 있다는 것이다. 하천관리에 하천환경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연구와 투자가 조심스레 증가하는 것은 반갑기 그지없다. 획일화된 직강화와 호안조성을 배제하고 자연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강변에 유희, 요식시설의 증가를 억제하는 시도는 길고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언젠가 그 성과가 후대의 자손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선물로 주어지리라 생각한다.

아름다운 강변을 만들기 위한 추억속에서 펼쳐진 강변의 과거 거행이 아닌, 미래를 위한 미래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진행형이어야 한다.

그래서 고운 모래가 지천으로 펼쳐진 강변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고 소리높여 외쳐야 한다.